

## 입당송 | 시편 106(105),47

주 하느님, 저희를 구하소서. 민족들에게서 저희를 모아들이소서. 당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고, 당신을 찬양하여 영광으로 삼으리다.

## 제1독서 | 예레 1,4-5,17-19

### 화답송 | 시편 71(70),1-2,3과 4ㄱㄷ,5-6ㄱㄷ,15ㄴㄷ과 17(◎ 15ㄴㄷ참조)

◎ 주님, 제 입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이야기하리이다.

○ 주님, 제가 당신께 피신하오니,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의로움으로 저를 건져 구하소서. 제게 귀를 기울이소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이 몸 보호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할 산성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보루시웁니다. 저의 하느님, 악인의 손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

○ 주 하느님, 당신은 저의 희망, 어릴 적부터 당신만을 믿었나이다.

저는 태중에서부터 당신께 의지해 왔나이다. 어미 배 속에서부터 당신은 저의 보호자시웁니다. ◎

○ 당신 의로움, 당신 구원의 행적을 저의 입은 온종일 이야기하리이다. 하느님, 당신은 저를 어릴 때부터 가르치셨고, 저는 이제껏 당신의 기적을 전하여 왔나이다. ◎

## 제2독서 | 1코린 12,31-13,13<또는 13,4-13>

### 복음환호송 | 루카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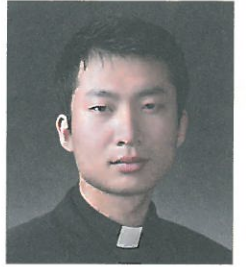
◎ 알렐루야.

○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게 하셨다. ◎

## 복음 | 루카 4,21-30

### 영성체송 | 시편 31(30),17-18 참조

주님,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창원 다니엘 신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국제협력센터장

#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탄자니아에서 선교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던 날, 인천공항에 내려서 서울로 들어오며 한강을 바라보니 콧노래가 저절로 흥얼거려졌습니다. 탄자니아에서는 깨끗한 물을 구할 수 없기에 빗물을 받아 마셨고, 그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빗물 또한 귀하고 부족했기에 빗물은 생명과도 같았습니다. 그런 곳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와 넘실대는 한강을 바라보니 저절로 콧노래가 나온 것이었지요.

한국에 돌아와서는 모든 것에 다 감사했습니다. 일상의 것들에 잘 웃고 행복했습니다. 깨끗한 물 한잔에, 따듯한 물로 하는 샤워에, 맛있는 한국 음식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모든 시간에 눈물 나게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기쁘게 지내지 못하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물과 식량 문제, 의료와 교육 문제, 코로나와 각종 재난으로 고통받는 가난한 나라의 어려움을 헤아리고 지원하는 국제협력 일은 분명 가치 있고 소중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복음적이고 보람된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기쁘게 지내지 못했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문제는 제 안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시며 함께 하고 계심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복음의 바로 앞부분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루카 4,18-19)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루카 4,21)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딱 맞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억압과 폭력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전해주는 일에 수많은 분들이 함께해주고 계시고 나눔을 실천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음 선포는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속 사랑 없이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그 일은 주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의 힘으로 일을 하려고 하니 힘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며 모든 것을 직접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먹고 마실 물이 없어서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교육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가난과 폭력의 일상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삶의 희망을 잃어버린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사랑의 나눔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우리들을 통해 주님께서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복음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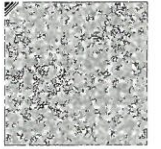
강원도 대관령

“그러므로 이제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으뜸은 사랑입니다.”(1코린 13,13)

지붕 위로 눈이 하얗없이 쌓여갑니다. 눈은 차가운 겨울을 상징하지만 그 밑의 땅의 온기를 지켜 줍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녹여 다가올 봄을 위한 생명의 밑알을 위한 수분이 됩니다. 사랑은 하얗없는 내리사랑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사랑을 배웠습니다.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시는 분으로부터. 여러분, 사랑합니다!



유별남 레오폴도 | 가톨릭사진가회



이서원 프란치스코  
한국분노관리연구소장

## 누구에게 돈을 맡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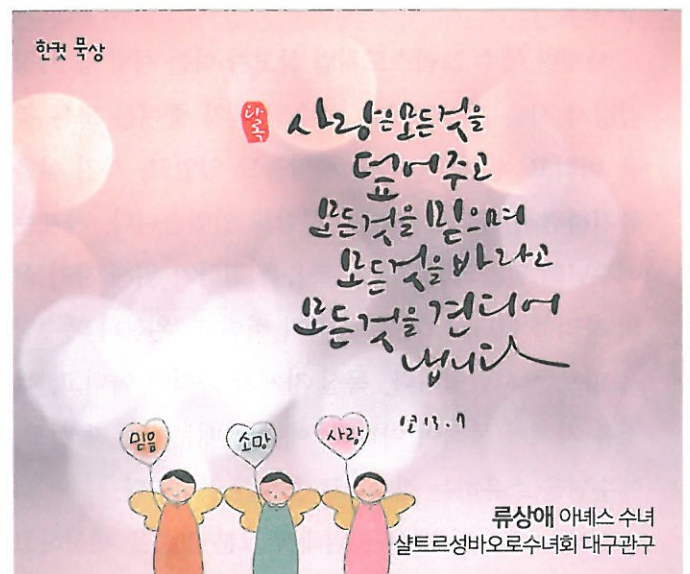
대학원 장애인복지론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교수님이 우리에게 던진 첫 질문은 “오늘 수업을 받고 나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한쪽 다리가 절단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였습니다. 학생들이 차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눈물만 날 것이다, 너무 화가 날 것이라는 이야기 등이 이어졌습니다. 제 차례가 왔을 때 ‘죽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그래, 다 다르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그 마음이 사실은 각자가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각이야.” 순간 쥐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를 공부하면서 누구보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던 저의 진짜 속마음을 다 들킨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장애인을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진짜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 장애인이 되었을 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을 생각하는 것이 진짜 태도입니다. 그날 이후 장애인을 볼 기회가 있으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이라고 물어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씩 장애는 불편한 것이며, 불편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편도 사회가 만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선의 불편과 물리적 불편은 모두 사회가 특별한 배려를 통해 풀어나가야 할 과제임도 알게 되었습니다. 훗날 교수로 장애인복지론을 가르치게 된 계기도 그날 느낀 부끄러움과 충격 때문이었습니다. 좋은 질문 하나는 관점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초청한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들을 위한 강의’에 시각장애인 교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우리 아이도 사회적으로 성공한 교수님처럼 만들고 싶은 부모들이 빼곡히 강의장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자리에 앉자 앞에 있는 엄마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머님, 만약 돈 1억을 누구에게 맡기고 외국을 1년쯤 다녀와야 한다면

누구에게 맡기시겠어요?” 질문을 받은 엄마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다 대답했습니다. “네, 중학교 때부터 단짝이었던 친구에게요.” 교수님은 그 말에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친구에게 맡기시려고 하세요?” 하고 되물었습니다. “그 친구는 떼먹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강의장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웃음이 잦아든 뒤, 교수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그 친구는 떼먹지도 않고, 적게 받았다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지 않을까요. 하느님이 지금 장애를 가진 아이를 세상 누구에게 맡길까 고민하신다면 누구에게 맡기려고 하실까요.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아이를 학대할 것 같고, 또 저 사람은 입양 보낼 것 같고. 그래서 하느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줄 사람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아이를 맡기신 게 아닐까요?” 침묵이 흐른 뒤 강의장은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질문 하나가 장애 자녀와 자신을 보는 눈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이 선택한 부모입니다. 하느님의 선택이 옳으시도록 자녀를 키워야겠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을 위한 가톨릭 신학 5

# 사제는 누구인가?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가출’과 ‘출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른 말입니다. 공통점은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재의 거주지를 떠난다는 점입니다.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가출은 지금 머무는 곳이 싫어 떠나지만, 출가는 찾아갈 곳이 좋아 떠나는 경우입니다. 가출과 출가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과 절실함이 요구됩니다.

옛그제 서울대교구 사제서품식이 있었습니다. 출가한 젊은이들이 사제가 되었습니다. 사제란 누구이고, 사제의 삶과 길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답하기 쉽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사제는 하느님과 관련된 사람, 하느님 때문에 존재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사제는 하느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입니다.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사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제는 최고의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제란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그분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존재’입니다.

사제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 중 가장 앞장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 삶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제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 즉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 삶의 자리를 떠나서,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독신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무소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혼자 살고,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사제는 하느님 백성을 위해서 그분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며, 백성을 대표해서 하느님께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성사를 거행하는 사람입니다. 사제는 자신이 받은 주님의 사랑과 기쁨을 하느님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제는 어딘가에 한 사람이 따로 떨어져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곳에 가고, 한 사람도 없다면 그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곳에 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톨릭교회는 사제를 하느님의 더 큰 영광과 그분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으로 이해합니다.

사제는 ‘영원하신 대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 하느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뽑힌 사람, 즉 주교와 신부를 포함합니다. 부르심으로 선택된 모든 사람은 하느님과 그분 백성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의 본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명과 사명은 성직자는 물론, 수도자와 평신도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수도자를 존경하는 이유, 수도자가 아름다운 이유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평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직자와 수도자만 자신의 삶으로 하느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된 사람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를 내고, 욕심을 내고, 이기적으로 산다면,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 노력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머리와 마음에 간직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서울주보와 함께 만드는  
가톨릭 교리 상식 코너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  
세요」 이벤트에 참여해 주신 분들의 질문으로  
꾸며집니다.

❶ 제 친구는 고등학생 때 세례를 받은 후 냉담하다가 사회혼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최근에 성당을 다시 나갔다가 자신이 조당이라 성체를 영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1년째 영성체를 못 하고 있는 제 친구는 남편이 관면혼배를 해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성체를 모실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조당에 걸리셨는데도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조당은 '혼인장애'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그리스도교 신자가 유효하게 혼인을 거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성체를 영하지 못하는 상태가 1년이나 되셨는데도, 교회 안에서 굳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심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용기를 잃지 말고, 신앙을 통해 하느님께서 주시는 힘에 더욱 의지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혼인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혼인이 보여주는 특별한 가치에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혼인을 통해 한 몸이 된 부부간의 관계는 사람들이 흔히 맺는 관계와는 다릅니다. 부부간의 관계는 교회와 그리스도 사이의 관계를 유비적으로 보여주는 표상과 같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신랑이라고 자처하시고, 교회는 신랑이신 그분의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 교리서 796항) 그러므로 사람간의 혼인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보여주는 온전한 일치'(가톨릭교회 교리서 795항)를 닮은 관계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교회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부터 유추해 낸 혼인의 가장 중요한 속성으로 '불가해소성'과 '단일성'을 꼽습니다. (불가해소성은 혼인으로 맺어진 인연이 죽을 때까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개념이며, 단일성은 혼인을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부부로 맺어지는 것이므로 일부다처제 및 다른 형태의 혼인을 금한다는 개념입니다.) 교회가 혼인에서 형식을 강조하는 것은 불가해소성과 단일성에 문제가 있는 혼인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가르침에 온 마음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자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질문을 보내주신 분의 친구분처럼 배우자가 교회의 관면혼배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길이 있으니 본당 신부님을 찾아뵙고 상담을 받아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혼인성사를 거행하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부부가 몇 년에 걸쳐 부부관계를 충실히 유지해왔고, 앞으로도 가정을 성실하게 잘 꾸려나갈 의지가 있다면, 교회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여러 장애를 관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이라면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단일성에 문제가 없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관면을 근본 유효화라고 하는데,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해서는 먼저 본당 신부님께서 면담을 통해 혼인의 유효성을 파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교회 법원에서 근본 유효화의 승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본당 신부님을 찾아뵙고 본인의 사정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지 않을 권해드립니다. 하느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교회 안에 머무려는 의지가 있다면, 교회의 혼인 절차는 장애물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위한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달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는 통합사목연구소 소장 양주열 씨로 신부님께서 자문해주신 내용에 따라 집필되었습니다.



# 한겨울에 꾸는 꿈, 슈베르트(Schubert)

〈겨울 나그네(Winterreise)〉 중 ‘봄 꿈(Frühlingstraum)’

사진출처: 음악의 역사 (음악사 대도감)

임주빈 모니카 | KBS프로듀서, 심의위원

이제 끝자락에 이르렀지만 1월은 겨울의 한가운데, 가장 추울 때입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공기와 매서운 칼바람이 우리 마음조차 얼어붙게 만들죠. 클래식 음악 방송에서 겨울이면 빠지지 않고 선곡되는 음악이 있습니다. 바로 슈베르트의 〈겨울 나그네(Winterreise D.911)〉입니다. 총 24곡으로 이루어진 연가곡집인 〈겨울 나그네〉는 매해 겨울 여러 프로그램에서 자주 듣게 되지만 진행자마다 다양한 해설로 개성이 다른 여러 성악가의 노래를 고루 들려주어 전혀 진부하게 느껴지질 않습니다. 바로 이 곡이 가진 매력이자 힘이겠지요. 겨울이면 이 음악을 듣는 것이 하나의 통과 의례처럼 느껴집니다.

고전주의 시대의 문이 닫히면서 낭만주의의 문을 활짝 열어젖힌 음악가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오스트리아)는 서른한 해 짧은 생을 살면서 상당수의 명곡을 남겼는데, ‘가곡의 왕’이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 그는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가곡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시라도 그의 손에 들어가면 매혹적인 선율의 날개를 달고 나와 아름다운 노래가 되었죠.


그중 빌헬름 뮐러(Wilhelm Müller, 1794~1827, 독일)의 연작시에 붙인 연가곡집 〈겨울 나그네〉는 슈베르트의 내면을 엿볼 수 있는 대표작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음악 시간에 부르던 ‘보리수’도 바로 〈겨울 나그네〉 중의 한 곡이죠. 이 작품을 작곡하던 1827년, 극도의 가난과 병고로 죽음을 옆에 끼고 살던 슈베르트는 뮐러의 시에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삶에 대한 절망과 고통을 공감했고, 이 감정은 음울하고도 황량한 겨울 풍경, 그리고 세상과 사랑으로부터 소외된 한 나그네의 응어리진 마음과 방랑, 쓸쓸함이 되어 이 작품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전체적으로 음울한 분위기의 곡들 가운데, 흥얼거리고 싶을 정도로 가뿐하고 친근한 멜로디로 귀를 기울이게 하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열한 번째 곡 ‘봄 꿈(Frühlingstraum)’입니다. 방랑하는 젊은이는 까마귀가 우짖는 황량한 겨울에 봄 꿈을 꾸니다. 화사한 꽃과 푸른 초원을 꿈꾸고, 아름다운 처녀와의 사랑을 꿈꿉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이것이 다 꿈이었음을 알고 한없이 낙담하게 되죠. 그럼에도 이 꿈을 접을 수 없습니다. ‘창가의 잎이 푸르게 변하면 내 사랑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음악은 달콤하고 희망에 찬 꿈을 꾸듯 가볍고 다정하게 시작하다가 곧 황량한 겨울 모습으로 바뀌고, 이어 현실을 깨닫고 낙심하는 젊은이를 그립니다. 다시 또 꿈을 꾸면서 분위기가 전환되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죠.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처럼, 한겨울에 꾸는 봄 꿈은 비록 찰나일지라도 ‘희망’ 그 자체입니다. 코로나 암울한 시기에 우리는 꿈을 꾸니다. 모두 마스크를 벗고 한데 어울려 손을 맞잡거나 얼싸안는 꿈입니다. 세상이 다시 거리두기 없이 친밀하고 활기차게 돌아갑니다. 마치 뮐러와 슈베르트가 한겨울에 꾸 ‘봄 꿈’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겨울 나그네’처럼 낙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꿈이 곧 이루어지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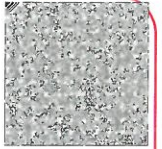
주님, 저희의 꿈이 하루빨리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아멘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중 ‘봄 꿈’**  
 성악가(테너): 피터 슈레이어  
 피아노: 시프 언드라시



**슈베르트, ‘겨울 나그네’ 전곡(全曲)**  
 성악가(바리톤): 디트리히 피셔디스카우  
 피아노: 제랄드 무어





# 가톨릭 국제 협력 개발 기구 편

#한국\_카리타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바보의\_나눔 #고통받는\_교회 돕기



김광두 고스마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찬미 예수님, 올 한해 여러분과 유튜브 세계를 함께 여행할 김광두 고스마 신부입니다. 유튜브는 온 세상의 수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입니다. 저도 크리에이터이자 시청자로 10년 넘게 애용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참 많은 사람이 각자 나름대로 영상을 올리다 보니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영상이 공유됩니다. 그 가운데,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잘 부합하면서 우리 교우들에게 유용한 영상을 제작하는 가톨릭 크리에이터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행을 시작하려는 오늘은 마침 해외 원조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된 거의 유일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세계 곳곳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교회 안의 여러 단체가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그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를 나름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널리 알려진 곳이 아직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톨릭 국제 협력 개발 기구들의 유튜브 채널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해외 원조 주일의 주관 기관이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의 공식 국제 협력 개발 기구인 '한국 카리타스 인터내셔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유튜브 검색창에 '한국 카리타스'를 검색하셔서 영상도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 주시면 홍보 담당자에게 큰 힘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카리타스 국제 본부에서 제작한 영상에 한국어 자막을 단 영상이나 자체 제작한 영상이 종종 올라옵니다.

가톨릭 국제 협력 개발 기구들 가운데 가장 유튜브를 잘 활용하는 곳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가 아닐까 합니

다. 특히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담당 신부님들이 진행하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여러 사업을 소개하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또 후원자들을 위한 월례 미사와 특강, 그리고 명동밥집의 천막 특강 등을 유튜브를 통해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주제의 강의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 협력 개발 기구들을 비롯하여 모금 활동하는 단체들은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또 어떤 곳에 후원금이 필요한지를 잘 알리려고 노력합니다.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방송과 신문에 광고하는 등 전통적인 홍보 활동 이외에도 오늘날 발전한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이용해 동영상, 카드 뉴스 등을 올리고 있습니다.

해외 원조 주일인 오늘 직접 후원하시는 것도 참 좋겠지만, 약간의 수고로 이런 단체들의 영상을 봐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은 후원이 아닐까 합니다.

**유튜브 QR 안내**



한국 카리타스



바보의 나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고통받는 교회 돕기



서울대학교 성소국  
모바일 홈페이지 QR



# 신부님이 나도 되고 싶어요!

## 서울대학교 예비신학생 첫미사 · 첫모임

중1		2월 12일(토) 오전 10시, 신학교 대성당
중2 & 중3		2월 19일(토) 오전 10시, 신학교 대성당
고1		2월 12일(토) 오전 10시, 신학교 서편성당
고2		2월 19일(토) 오전 10시, 신학교 서편성당
지원 반		2월 12일(토) 오후 2시, 신학교 대성당
(고3 & 일반)		

- 예비신학생 모임에 나오시기 전, 본당 사무실에서 예비신학생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학년별로 모임이 진행됩니다.
- 미사 30분 전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문의: 02)727-2123, 서울대학교 성소국 -



### 예비신학생 모임이란?

서울대학교 사제를 지향하는 성소자들이 건전한 인격을 지닌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그들이 갖고 있는 사제직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정화시켜 구체적인 동기가 되도록 이끌어줌으로써 올바른 지향을 가지고 결단을 내리도록 돕는 모임입니다.



**오늘(1월 30일)은 '해외 원조 주일'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1993년부터 1월 마지막 주일을 해외의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날로 지내오고 있습니다. 기아와 빈곤으로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전 세계의 가난한 이들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형제적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과 많은 기도 바랍니다.

**2월 1일(화)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날'입니다**

이 날은 설날 미사 경문으로 합동 위령미사를 봉헌할 수 있습니다.

**2월 2일(수)은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12년 2월 3일 이영춘 세례자 요한 신부(52세)
- 2018년 2월 4일 김용화 바오로 신부(62세)
- 2019년 2월 5일 최영식 마티아 신부(72세)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일시: 매월 첫 목요일 오후 8시  
 장소: 명동대성당 대성전  
 첫 번째 성체조배: 2월 3일(목) 오후 8시

**서울대교구 애플리케이션 '가톨릭 서울' 안내**



아이폰용



안드로이드용

**온라인 서울주보 코너 '알려드립니다' <시노드 편>**



시노드 1편

온라인 서울주보 코너 <알려드립니다>는 가톨릭교회의 행사 소식, 시설 정보, 교회 제도 등 다양한 교회 소식과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시노드 2편

유튜브에서 <가톨릭주보>를 검색하세요

**교구청알림**

**서울대교구 사목 상담, 화상 수업**

주제: 내면의 아이의 회복  
 때: 2월8일~5월10일 매주(화) 오후 8시~9시  
 강사: 문종원 신부 / 문의: 010-6224-2920 강명인

**서울대교구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대상: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회비 없음)  
 때: 2월3일(목) 오후 2시~3시  
 곳: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집전: 김현진 신부(과테말라 선교)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 상처 치유 프로그램 및 미사)**

대상: 낙태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2월8일 13시30분~16시30분 매월 두번째(화)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3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생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orlife.or.kr) 참조

**병원사목위원회 온라인 유튜브 미사**

내용: 병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의료 봉사자들을 위해서 미사가 봉헌됩니다  
 때: 매주(금) 오후 3시(실시간 미사)  
 미사지향 신청: camillus.seoul@gmail.com  
 유튜브 검색 → '서울대교구 병원사목위원회'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설연휴 휴관안내: 1월25일(화)~2월8일(화)

**월요성경 온라인회원 모집**

내용: 신구약 전체 / 회비: 연회비 12만원  
 때: 1월3일~12월26일 매주(일) 오후 9시  
 온라인: 월성 회원 전용 밴드 라이브  
 대면 강의: 매주(월) 13시, 가톨릭회관 3층 대강의실  
 강사: 조창수 신부/문의: 010-7586-5425 황테레사(문자로 문의)

**직원모집**

**가톨릭평화방송 · 평화신문 공개 모집(신입·경력)**

분야: PD(TV·R), 기자, 기술, 경영, 마케팅  
 2월8일까지 접수 / 문의: 02)2270-2223, 5  
 홈페이지(www.cpbc.co.kr) 참조

**방배동성당 사무원 모집 / 문의: 02)584-9731**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및 PC(한글·엑셀 등)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본당 사무실 방문 및 우편(우 06703,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5길43 방배동성당 사무실) 접수

**서울성심간병인회 남녀 간병사 수시 모집**

곳: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서울삼성병원  
 근무내용: 환자에게 간병 제공(24시간 병원 상주) / 1522-9415

**동촌7종합사회복지관 언어치료사 모집**

근무: (월~금) 톿 2일 13시~18시 / 문의: 02)2658-6522  
 대상: 언어재활사 2급 이상 보유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생명운동센터 직원 모집**

대상: 생명나눔운동에 관심 있으신 모든 분  
 인원: 1명 / 근무기간: 채용시부터 12월31일까지  
 2월4일(금)까지 이메일(obos-hr@obos.or.kr) 접수  
 세부사항은 홈페이지(obos.or.kr) 참조

**세검정성당 시설관리 직원 모집**

분야: 시설관리인(계약직 1명)  
 업무: 시설물 관리, 방호, 미화 /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 신자, 시설관리 자격증 소지자 우대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2월6일(일)까지 팩스(02)3217-9200, 이메일(khly88@naver.com), 우편·방문(우 03018, 서울시 종로구 세검정로6길 38) 접수 / 문의: 02)3217-9595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통보)

수도회 상소모임	☏	곳	문의
도미니코 수도회	수시	수도원(강북구 삼양로139나길 16-8)	010-3012-2616 조성하 신부
성골롬반외방선교회	2월6일(일) 10시	서울 본부(동소문로,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2)924-3048(korvocation@columban.or.kr)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본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성심의 프란치스코 수녀회	수시	수녀원(성북구 장위동)	02)941-4139, 010-8563-6875

**인준단체 알림**

**모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내용: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2월5일(토) 17시(미사), 가톨릭회관 205-2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대침묵 피정**

내용: 공동기도수행, 강의, 영적지도  
 때, 곳: 2월10일~13일·2월24일~27일(각 3박4일),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우이동) / 문의: 02)990-1004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99차	2월18일(금)~26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100차	3월18일(금)~26일(토)	

**교육**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홉카페마스터자격증반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구, 기도모임)**

내용: 말씀(영성교육)과 과전미사 / 문의: 02)753-8765  
 때, 곳: 2월6일(일) 13시30분~17시, 가톨릭회관 3층

**노들담 실천교리 연수**

내용: 이미지와 활동을 통한 성경과 교리교육  
 때, 곳: 2월27일(일) 10시~16시30분, 노들담교육관  
 (종로 북촌로) / 문의: 010-8829-6292([www.ndrpp.or.kr](http://www.ndrpp.or.kr))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히브리어·희랍어)**

때: 4월부터 1년 과정 11시~13시  
 (목) 신약 (금) 구약 / 회비: 3개월 30만원  
 문의: 010-4598-6912 김성태 신부(프란치스코회)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신학과정**

대상: 가톨릭교회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내용: 가톨릭신학 26과목을 통신(우편)으로 공부  
 접수: 3월31일(목)까지 우편접수 가능

**2022년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추가모집**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선교사(교리교사) 자격 수여  
 접수: 2월15일(화)까지 / [ci.catholic.ac.kr](http://ci.catholic.ac.kr)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교리교육 학과	주 5일 주간(2년)	세례 3년 넘은 견진자 입회 2년 넘은 수도자
종교교육 학과	주 4일 야간(2년)	타 대학에 적이 없고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신학심화 과정	주 3일 주간(1년)	본원 교리·종교학과 준한 과정 이수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벨칸토 발성 아카데미**

대상: 성가와 가곡을 부르고 싶은 가톨릭 신자  
 (성가대원·성가대 희망자, 비신자 / 내용: 발성이론(원리·실습·호흡법), 가창실기(성가·가곡)  
 때: 3월8일~4월26일 매주(화) 오전반 10시~12시·저녁반 19시~21시(8회) / 인원: 오전반·저녁반 각 25명  
 곳: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7층 체칠리아홀  
 회비: 16만원(OT 이후 환불 불가) / 단,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개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문의(접수): 02)6364-2204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모집**

**수락산성당 청년성가대 반주자 모집**

때: (일) 18시(청년미사) / 문의: 02)934-0081 사무실

**등촌7중합사회복지관 우쿨렐레 재능기부자 모집**

활동내용: 우쿨렐레 기초강습 및 연주법 강의  
 때: 매주(토) 16시~17시 / 문의: 02)2658-6521

**방화3동성당 주일 교중미사 반주자 모집**

미사: (일) 오전 11시 / 서류: 교적 사본  
 대상: 가톨릭신자이며 반주 유경험자(해당분야 전공자)  
 2월20일(일)까지 이메일([jsy9059@naver.com](mailto:jsy9059@naver.com)) 및 우편(우 07518,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50길 16 방화3동성당) 접수 / 문의: 02)2661-2234

**명동대성당 영어미사봉사단 신입단원 모집**

대상: (일) 오전 9시 영어미사 전례봉사 및 기본적인 영어회화가 가능한 청년 교우 / 2월11일(금) 23시59분까지 이메일([mdemsv@naver.com](mailto:mdemsv@naver.com)) 접수  
 서류: 지원서(DOC, 명동대성당 영문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PDF) / 면접: 2월20일(일)  
 문의: 010-2732-9546 단장(문자 요망)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체나클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2월12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곶벚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성모신심미사**

내용: 성모마리아 신심 미사 / 문의: 02)793-2070  
 때, 곳: 2월5일(토) 10시,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2월4일(금) 14시~16시 / 지도: 양창우 신부  
 곳: 가톨릭회관(전철 4호선 명동역) 1층 / 문의: 02)929-2977  
 코로나19 상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북방선교회 후원회 월례미사 / 문의: 010-6219-1575**

대상: 북방선교에 관심있는 분은 누구나 / 회비 없음  
 집전: 김운상 신부(해외선교봉사국 차장)  
 때, 곳: 2월9일(수) 14시, 가톨릭회관 205-2호

**오순절평화의마을 2월 후원회 미사 / 문의: 051)782-0765**

때, 곳: 2월3일(목) 11시(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갯세마니 첫 목요일 성시간·미사(말씀의 선교 수도회)  
 대상: '예수성심의 온전한 사랑' 말씀의 치유를 바라는 신자 / 문의: 02)312-7211 선교 사무실  
 때, 곳: 2월3일 19시~21시,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정동)

**예수성심 신심미사·기도(절두산순교성지 로사리오회)**

내용: 연명과 가정을 위한 기도와 미사(중식 미제공)  
 때, 곳: 2월4일(금) 11시30분, 절두산성지(전철 2호선 합정역 7번 출구) / 문의: 02)3142-4434

**가정선교회 2월 행사**

첫토성모신심미사와 성가정영성피정: 2월5일 13시~17시,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최환진 신부, 이현주 회장  
 찬양: 고영민 단장과 손현희 / 문의: 010-6281-8626, 010-4077-3954, 02)777-1773 대표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 1) 첫토요일 신심미사  
 내용: 고해성사·미사 /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2월5일(토) 오전 10시~12시, 가톨릭회관 3층
- 2) 청년셀 기도모임  
 때: 매주(금) 19시30분 / 대상: 미혼(35세 미만)  
 곳: 가톨릭회관 516호 / 문의: 010-6701-1013

**인사**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리조트)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문의: 041)934-7758, 010-3076-7489

**응암동성당 '요셉 추모와 축복의 벽' 패 신청**

추모패·축복패 접수 / 사용 기한: 무기한단, 20년 이후 재건축 등의 상황 변화에 따라 기간 변동될 수 있음  
 대상: 고인(추모패), 세상을 살고 있는 교우·비신자 등(축복패) / 사용료: 1인패 100만원, 2인패 150만원  
 혜택: 명절, 위령의날, 매월 합동 위령미사, 생미사 봉헌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 문의 / 문의: 02)2021-2700

**살레시오교육영성센터 상담실**

곳: 살레시오 교육영성센터 상담실(전철 7호선 신봉역 4번 출구) / 문의: 02)841-0524, 010-2382-3524

자신과 타인의 연결을 위한 깨어있는 대화	2월10일(수) 10시~12시30분(8주)	엄영주 수녀 (상담심리사1급)
나와 가족이 행복해지는 심리강좌	3월3일(화) 10시~12시30분(12주)	김은희 수녀 (상담심리사1급)

서울주보 게재 신청: <http://cc.catholic.or.kr>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 새해, 하느님과 더욱 각별해지는 시간 여러분이 계획한 2022년은 어떤 모습인가요?

##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는 새해



### 40일 성경 기도 노트

간절한 소망이 하느님께 닿는  
40일간의 기도

|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 12,000원

40일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기도 지향을 청하며 정성을 다하도록 이끌어 주는 기도 노트입니다. 특히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담은 《준주성범》 내용도 담겨 있어 필사 기도를 바치며 자연스럽게 이를 익힐 수 있습니다.



### 모든 순간이 다 꽃으로 필 거예요

이해인 수녀의 아름다운 시가  
당신의 오늘을 보듬어 줍니다!

| 이해인 지음 | 10,000원

이해인 수녀의 시 중에서도 독자에게 가장 힘이 되는 시 구절을 엮은 365일 탁상용 희망 달력입니다. 계절이나 절기, 특별한 날에 맞추어 엄선된 시를 보며 아름다운 나날을 가꾸어 나가다 보면 내일을 살아갈 기운과 희망을 선물받게 될 것입니다.

## 삶의 방향을 되찾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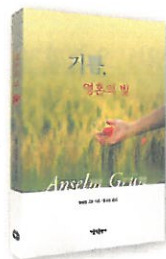
###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개정)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아야 할  
'인생의 16가지 순간'

| 조앤 치티스터 지음 | 20,000원

교부님과  
중고  
베스트셀러

세계적인 가톨릭 영성가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인 조앤 치티스터 수녀가 코헬렛서에서 발견한 인생의 지혜를 전해 줍니다. 2022년, 더 넓은 시각으로 나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면 조앤 수녀가 건네는 영적인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보세요.



### 기쁨, 영혼의 빛(개정합본)

더 행복한 삶을 꿈꾸며  
기쁨을 찾는 당신에게

| 안셀름 그윈 지음 | 14,000원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기쁨과 행복은 저 멀리 있다고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곁에는 힘든 일보다 기쁨 일도 더 많습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있다면, 안셀름 그윈 신부가 말하는 오늘 의 행복을 놓치지 않고, 내일의 기쁨을 찾는 방법을 만나 보세요.

## 2022년 신앙의 목표: 영적 성장



### 준주성범<가톨릭클래식>

영성 생활의 길잡이가 되어 주는  
명확한 지침서

| 토마스 아 캠퍼스 지음 | 18,000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 주는 책입니다. 성경 말씀과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풀이하고 있어서 주님을 섬기며 사는 삶의 모습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리스도를 더욱 본받는 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 신심 생활 입문<가톨릭클래식>

세상 한가운데서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법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 지음 | 20,000원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성인이 한 신자에게 보냈던 편지를 묶어서 펴낸 책으로 묵상, 기도, 성사,德行 실천, 유혹에 대한 자세 등 신심 생활의 덕목을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설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 새해에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 보세요.

제2213(성 바오로 사도 회심 축일)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주임신부 : 류시창(베드로)

보좌신부 : 이철규(아우구스티노)

연령회장 : 지병국(바오로) 010-5512-4450

주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요일: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li> <li>주일: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li> </ul>	유아세례	홀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평일 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월요일: 06시 화요일: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06시, 10시 토요일: 06시</li> </ul>	혼인면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 새사제 첫 미사 후 강복

일시 : 1월 30일(주일) 오전 11시, 오후 6시

주례사제 : 전용희 스테파노, 전원희 비오

\* 1월 30(주일)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디주일학교미사는 없습니다.

◎ 설날 합동위령미사 안내

2월 1일(화) 설날	오전 6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9시 (합동위령미사)
	오전 11시 (합동위령미사)
2월 2일(수)	오전 6시 (주님봉헌축일미사)
	오전 10시(주님봉헌축일미사)
2월 3일(목)	미사 없습니다.(사무실휴무)

※ 설날 당일 합동위령미사에는 연도 및 분향이 있습니다.

※ 설날합동위령미사신청은 1월 30일(주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 오전 6시미사 (미사후에 연도 바칩니다.)  
오전 9시/11시미사 (미사전에 연도 바칩니다.)

◎ 주님 봉헌 축일

2월 2일(수)은 주님봉헌축일로 1년 동안

전례에 사용하는 초를 축복합니다.

매 미사 중에 초 축복 예식이 있습니다.

	제대초 봉헌	가정초 접수
1자루	8,000원	3,200원
신청	성당 사무실	성물방

※ 접수마감 : 1월 30일(주일) **오늘**

◎ 성모 신심 미사 : 2월 5일(토) 오전 10시

◎ 세계 병자의 날 미사 안내

2월 11일(금) 오전 10시 미사는 환우들과 환우들을 돌보는 모든 분들을 위해 봉헌합니다.

◎ 중고등부 주일학교 피정

일시 : 2월 5일(토)~6일(주일)

장소 : 한마음수련원

대상 : 예비 중1~중2

문의 : 중고등부 교감 (010-2517-3614)

\* 방역지침 안에서 허락된 장소입니다.

◎ 여성구역회 떡국떡·만두 판매

수익금.....1,687,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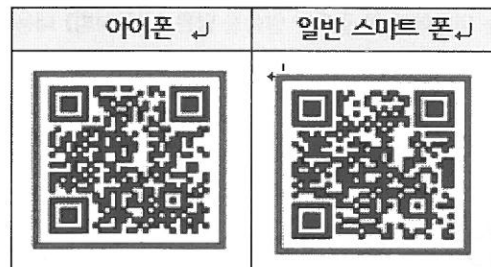
※ 도움주신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에 대한 결산 보고서(양식은 사무실에 비치)와 회계장부 및 영수증을 1월 30일(주일)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바랍니다.

◎ 서울대교구 어플리케이션 '가톨릭 서울' 안내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본당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개인 신앙생활을 돕기 위해 '가톨릭 서울'을 마련하였습니다.

- 다운로드 방법

- 1) 플레이 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 검색창에 '가톨릭 서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2) 아래의 QR코드를 이용하여 다운로드해 주시면 됩니다.



- 3) 앱 다운로드 후 회원가입하시면, 신앙생활에 필요한 기도문, 성경 읽기 등 다양한 콘텐츠가 있습니다.

◎ 오늘은 해외원조주일 2차 헌금이 있습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2. 1. 23)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율)	납부세대 (납부율)	2021년 책정율	2021년 납부율
2,084	398 (19.1%)	284 (13.6%)	43.8%	42.5%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책정한 세대는 2021년 12월분까지 납부해주시고, 미책정 세대는 빠른 시일 내에 교무금을 책정하신 후 2021년도 교무금을 완납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당유지보수기금 (2022년)

정종문 .....이십만원  
누 계 .....10,014,000원

◎ 연령회 감사헌금

고 이길자 수산나 상가 .....삼십만원  
고 권춘광 바오로 상가 .....이십만원

◎ 감사헌금 (1월 17일~23일)

박옥연 .....일백만원 김수진 .....삼만원  
박무송 .....이백만원 조영자 .....일백만원  
함영동 .....일만원 전병암 .....오십만원  
익 명 .....오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연중 제3주일)

교무금 .....8,136,000원  
주일헌금 .....4,564,000원  
성당유지보수를 위한 2차헌금 .....2,025,000원